

맞벌이 주부의 취업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권 유형에 따른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Financial Communication and the Equality of Financial Power Perceiv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and the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among the Employed Housewives

김 정 훈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Kim, Jung Hoon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and the type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on the financial communication and equality of financial power perceived by working wives. From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1. Housewives' income power led to the increase of their financial decision-making leadership and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to the financial matters. 2. The influences of husbands' leadership on the household finance were greater than one of wives' leadership. Depending on who has the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there were the differences on degree of the understanding and the discretion. 3. Although joint management style was popular today, the major management leadership was belonged to husbands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sex role in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area.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이래 계속 상승하여 1980년 40.0%였던 것이 1993년에는 46.4%로 증가하였고(이승신의, 1996, 81), 1994년 도시근로자 10가구중 3가구는 맞벌이 가계였다(경향신문, 1995. 12. 14). 특히 집중적 양육 부담에서 벗어난 35세 이상의 경우 50%를 넘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었다(이현송, 1996). 이러한 기혼여

성의 취업은 여성 자신들뿐 아니라 남성들의 요구이기도 한데, 젊은층에서 맞벌이 부부는 소망하는 가계형태로서 배우자 선택에서 취업 여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실제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보편적 가계관리 형태이며,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현상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본 연구는 1997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참여 현상과 그 욕구 증대는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금전적 요구가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이연숙의, 1991; 이현송, 1996; 경향신문, 1995. 12. 14; 동아일보, 1995. 2. 3; 경향신문 1996. 4. 29; Scanzoni, 1977; Spitz & Waite, 1981). 이제 더 이상 가족부양의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원은 남성만이 아니며, 여성, 특히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이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함께 수행하고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Scanzoni, 1977; Yogev, 1987). 이는 여성의 소득력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정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연구는 맞벌이 부부와 홀벌이 부부를 비교하여 주부의 취업여부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그 단일요인에 의한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고정자, 1994; 김명자, 1981; 김순미, 1993; 김정훈 1995a & 1995b; 이무영·이정우, 1995).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맞벌이 부부가 홀벌이 부부에 비해 소수그룹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가계관리 관련 연구들 중에서 1980년대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취업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한 예도 거의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같은 통계적 사실들과 오늘날 사회적 경향은 우리가 맞벌이 가계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를 촉구한다.

Schiller(1979)는 맞벌이 가계의 문제를 기술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는데 기술적 측면은 주로 두개의 소득을 갖기 위해 치루어야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평가이며, 인식적 측면은 주부의 소득행동과 관련된 감정적인 문제로서, 공평성과 독립성 측면에서의 소득의 의미, 소득권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수행 등으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생활 패턴의 여러 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이다.

또한 과거, 심지어는 현대에도 주부의 취업은 항상 제2의 선택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Spitze & Waite, 1981; Statban & Larrick, 1986). 즉, 주부의 제1역할은 가사와 육아에 있고 그 역할을 만족스럽게 수행한 후에 결정

될 수 있는, 때로는 허락될 수 있는 제2의 역할이며, 가족전체의 욕구보다는 여성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선택행동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에 대한 책임수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은 참여와 그 성공에서 제한되어왔으며, 남편의 부인 취업에 대한 태도나 그에 대한 부인의 인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pitze & Waite, 1981; Statban & Larrick, 1986; Quallis, 1987; Filiatrault & Ritchie, 1980).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소득동기가 주부의 취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은(경향신문, 1995. 12. 14, 1996. 4. 29; 동아일보, 1995. 2. 3; 이연숙의, 1991; Scanzoni, 1977; Spitz & Waite, 1981) 여성의 취업이 여성만의 욕구충족이 아니라 가계구성원 모두의 욕구충족을 위한 선택행위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부의 취업에 대해 남편과 주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불만족 뿐만아니라 가계재정관리상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논의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부는 가계관리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로는 소비관리자 또는 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가계의사결정권이나 총체적인 경제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대개 남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김정훈, 1996; 서병숙·임정빈, 1981; 이연숙의, 1991). 그런데 우리사회는 실제적인 화폐 소득력의 소유여부가 그 사람의 힘을 의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득을 포함하여 가정에 가져오는 자원의 정도는 부부사이에서 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1; Klebanow, 1991; Schiller, 1979; Quallis, 1987). 여성의 경제력 소유는 여성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의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의 권력구조에서 힘을 소유하게 하며, 평등관계를 성취하게 한다. 따라서 여성이 소득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여성의 지위와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김명자, 1981; 김홍은, 1986; 문숙재 외, 1995; 이정우·김규원, 1986; 한국가족학연구회, 1991).

따라서 주부가 화폐소득을 통해 가계에 기여할때 가계의 전반적인 재정관리 모습과 주부의 태도 및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가계의 가계관리를 인식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맞벌이 주부가 인지하는 가계 재정의사소통과 재정권력의 평등도를 살펴보고,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권 유형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① 부부의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인식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 ② 가계관리권 유형에 따라 주부가 인지하는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관련 연구

1. 취업 선호 인식

우리 나라 남편들이 맞벌이를 찬성하는 이유나 기혼여성들이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목적, 즉 금전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이연숙등, 1991), 48%의 여성과 58%의 남성이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996. 4. 29).

기혼여성의 취업은 남편과 가족의 여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 그리고 성역할 기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여성의 수용태도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Spitze & Waite, 1981; Statbam & Larrick, 1986, Quallis, 1987). 특히 남편이 부인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인이 느끼고 있는지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강력한 예측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때 남편의 태도는 주로 현재 가정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부인의 태도변화에 관계없이 그들의 노동시장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비해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태도는 남편의 선호성, 그 선호에 대한 문화적 지지경향, 취업결정에 대한 부인의 자유선택권한 정도, 결혼계속 가능성과 관계가 있었다.

Bird(Schiller, 1979에서 재인용)는 맞벌이 부부 연구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맞벌이 가족에서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하면서 부부의 아내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취업 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경우에 각각 적용하여 부부 모두 원하는 형, 아내 자신만 원하는 형, 남편만 원하는 형, 부부 모두 원하지 않는 형의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김정훈등(1996)의 Bird의 취업선호 유형에 따른 개인, 가족, 직업생활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남편의 심리적, 행동적 지지, 자녀의 애정적 가치인식, 현재의 직장 만족도와 이중역할에 대한 긴장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2. 가계관리권

김정훈과 김현정(1996)의 연구에서는 가계 경제권자는 남편이 가장 많았고(41.4%), 금전관리자는 부인이 가장 많았다(57.8%). 가정의 주요재정 의사결정자는 부부공동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47.5%), 부인인 경우는(11.4%) 남편에(41.1%)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위의 세가지 가계관리권 영역 모두에서 부부공동관리 유형을 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비 지출 담당자는 도시와 농촌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모든 지출을 부인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시 35.5%: 농촌 28%), 남편용돈만 제하고 생활비는 부인이 맡아서 관리하는 경우(34%: 18.4%), 생활비는 부인이 맡고 특별지출은 남편이 하는 경우(27%: 37.5%)가 있었다. 매일 필요한 돈을 남편이 내놓는 경우는 도시는 3.5%, 농촌은 16.1%였다(서병숙·임정빈, 1981).

미국 가계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계가 홀벌이 가계보다 금전관리에 대하여 부부공동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나 부인의 책임감은 홀벌이 가계에서 보다 일반적이었다(Fitzsimmons, 1988).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재정적 역할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생활만족도가 높은 계층에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재정역할에 대한 충족도가 낮았다(김명자, 1981). 여성의 재정적 책임감이 그의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남성에게 비해 낮다는 것은 Klebanow(1991)도 지적하였으며, 그는 이것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교육때문으로 보았다.

3. 재정관리 유형

한국 맞벌이 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연숙 등(1991)은 Pahl(1986)의 유형분류에 기초하여 재정관리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비 지출 형태는 남편과 부인소득을 모두 합쳐 그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두 사람 소득의 일부씩을 사용하는 유형, 주로 부인소득으로 지출하는 유형, 주로 남편소득으로 지출하는 유형 순이었고, 소득관리 형태는 두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인이 관리하는 유형이 55.7%로 가장 많았고, 모두 합쳐서 공동관리하는 유형이 16.0%, 개별관리 유형이 9.7%였다.

그런데 이연숙 등은 맞벌이 가계에서 소득관리 형태와 생활비지출 형태를 연구하였는데 부인이 관리하는 경우는 62.7%,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는 3.4%,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24.2%였으며,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개별관리는 9.7%였다. 또 부인, 남편, 그리고 공동관리에서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그 일부를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개별관리에서만 주로 부인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주로 부인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개별관리형태가, 주로 남편소득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남편관리형태가, 그리고 두 소득을 합쳐서 일부를 지출하는 경우는 공동관리형태가 가장 많았다. 각각 소득의 일부씩을 생활비로 부담하는 경우는 부인관리가 가장 많았다(이연숙외, 1991). 최근 맞벌이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각자 용돈 내역에 대해 의논하지 않으며, 수입은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46%, 부부별산제가 14%, 전통적 유형인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39%,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 1%로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경향신문, 1996.4.29).

4. 재정의사소통

재정의사소통의 개방도와 갈등도, 나아가 재정 만족도는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 태도, 그리고 시간 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고(김정훈, 1995a), 재정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은 재정관리유형이 각자관리형일 때 남편이 부인의 지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통합관리의 경우에 주부는 가계 총재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부인의 비자금 정도는 통합관리유형에서 가장 낮았고, 재정의사소통은 각자관리에서 가장 덜 개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기술, 숙련직 주부들이 전문직 주부들보다 남편의 지출에 대해 더 잘 알고있었으며, 재정의사소통이 덜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갈등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김정훈, 1996).

돈과 인간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미국의 한 조사는(Rubenstein, 1981)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을 알고 있다는 여성의 응답이 남성의 응답보다 적었으며, 특히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을 때 돈에 대한 다툼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응답자들은 가족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내것은 내것'이라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주부의 61.5%가 남편이 모르는 비자금을 갖고 있었으나(기업소비자정보, 1995), 남성들은 67%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갖고있었다. 그런데 여성들이 비상금을 주로 가계관리에 재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남성들은 이들 비상금을 주로 술값등 오락적 소비에 사용하고 있었다(경향신문, 1996. 3. 11).

Munsinger 등(1975)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특정 의사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50%미만으로, 따라서 부부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의사결정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Joint decision making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정의 의사결정은 그 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관계가 있으며(Munsinger, Weber, & Hansen, 1975; Quallis, 1987), 의사결정 행동에서(재정의사결정포함) 역할 구조는 교육, 직업에 대한 자부심, 부인의 고용여부, 성역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Quallis, 1987).

5. 재정권력 평등도

김정훈(1996)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계에서 가계 재정관리 유형에 따라서는 맞벌이 주부의 재정권력 평등도에 대한 인지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전문

직 주부들이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가진 주부들보다 재정의사결정 공평성에 대해 낮게 인지하고 있었고, 기술, 숙련직 주부들이 사무직 주부들보다 가계주도권 균형도가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으로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지역에서 직장을 단위로, 다양한 직장 분포를 갖도록 임의 선정, 조사하였다. 자료는 1995년 1월 9일에서 2월 10일까지 수집되었는데, 수집된 자료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358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¹⁾

본 연구에서 그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으로 한 것은 이 시기가 가족생활주기에서 소득과 지출 구조상 소득에 비해 지출이 증대되는 시기이므로 재정 의사소통이나 재정권력 평등과 같은 가계관리과정이 매우 중요시되며, 더불어 주부의 소득기여가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단계에 비해 보다 의미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이들 연령층은 그 윗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서 벗어난 세대여서 맞벌이 가계의 인식적 측면을 논의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2. 조사 도구와 용어의 조작적 정의

조사도구는 관련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자기기입식 질문지 형식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관련 변수들은 1)취업선호 인식, 2)가계관리권 유형, 그리고 가계관리의 인식적 측면으로서 3)재정관리 유형, 4)가계 재정의사소통과 5)재정권력 평등도 인지이다.

1)주부 취업 선호성 인식은 Schiller(1979)의

여성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기준으로 ①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유형, ②부인만 취업을 원하는 유형, ③남편만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유형, 그리고 ④부인과 남편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주부의 직업유형은 ①기술, 숙련직과 ②사무직, ③전문직으로 분류하였다. 3)가계관리권 유형은 가계 경제권자, 금전관리자, 주요 재정 의사결정자 영역으로서 전적으로 남편, 주로 남편은 묶어서 ①남편, 전적으로 부인과 주로 부인은 묶어서 ②부인으로, 그리고 ③부부공동의 세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4)가계 재정의사소통 인지는 부부사이의 재정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인지와 그 결과로 인한 가계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9개의 관련변수들로 이루어졌다. 이중 맞벌이 주부가 인지하는 부부사이에 가정의 재정적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①개방적으로 논의하는지(개방도)와 이때 얼마나 ②갈등을 느끼는지(갈등도)는 재정 의사소통 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이며, 부부의 배우자의 소득(③, ④)과 지출(⑤, ⑥), 비자금에 대한 파악 정도를 주부가 인식하는 정도(⑦, ⑧)와 ⑨주부의 가계 총재산에 대한 파악정도의 7개 변수는 재정 의사소통 결과와 관련된 변수들이다. 여기서 본 연구는 주부가 응답한 것이므로 부인의 비자금, 소득과 지출에 대한 지식은 주부가 인식하는 남편의 지식을 뜻한다.

5)가계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는 주부가 재정 의사결정에서 남편과 얼마나 ①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재정의사결정 공평성)와 ②가계 주도권의 균형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느끼는지(가계 주도권 균형도)로 구성되었다.

재정 의사소통 개방도($R^2=.516, p<.000$)와 갈등도($R^2=.621, p<.000$), 재정 의사결정 공평성($R^2=.368, p<.000$)과 가계주도권 균형도($R^2=.315, p<.000$)는 상관관계를 고려한 2개씩의 문항들을 이용하여 이들의 평균점수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유형변수들을 제외하고 모두 5점 Likert-Scale로 측정된 값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1 본 연구의 자료는 김정훈 (1996) '재정관리 유형과 직업유형에 따른 맞벌이 주부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인지' (대한가정학회지, 34권 6호, 275-285)의 후속연구로서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가계관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들을 산출하였다. 그의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주부의 가계관리권 유형에 따른 차이는 One-Way ANOVA와 χ^2 검증을 하였고,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 인식에 따른 차이는 취업 선호의 각 사례수의 차이가 커서 비모수통계인 Kruskal-Wallis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와 해석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3.31세였으며, 평균 교육기간은 14.20년이었다. 이들 가정의 월평균 가계 총소득은 2백2십8만6천원이었으며, 월평균 가계 총생활비는 1백3십4만3천원이었다<표1>.

<표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남편	부인
	M(SD)	M(SD)
연 령 (세)	35.82 (4.37)	33.31 (3.89)
교육 기간 (년)	15.30 (2.24)	14.20 (2.40)
개인 소득 (만원)	130.82 (77.53)	97.30 (39.09)
월평균 가계총소득 (만원)	228.60 (100.41)	
월평균 총생활비 (만원)	103.43 (52.05)	
가 족 수	4.35 (1.30)	
직업	N (%)	N (%)
전문직	77 (23.0)	80 (23.7)
사무직	181 (54.0)	161 (47.8)
기술,숙련직	77 (23.0)	96 (28.5)
합계	325 (100.0)	337 (100.0)

Note: 표들의 합계는 무응답때문에 차이가 있다.

2) 주부 취업선호 인식

주부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취업주부는 93.3%였고, 남편이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가계의 취업주부는 69.5%였다<표 2>.

<표 2> 부부의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 인식

	N	%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한다	228	66.9
부인만 자신의 취업을 원한다	90	26.4
남편만 주부의 취업을 원한다	9	2.6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	14	4.1

3) 가계 관리권 유형

조사 대상자들 가정에서 가계 경제권자는 부부 공동인 경우가, 금전 관리자는 부인인 경우, 그리고 가계 주요 재정 의사결정자는 부부 공동으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3>.

<표 3> 가계관리권 유형 (N=357)

	남 편	부부 공동	부 인
경제권자	45 (12.6)	195 (54.6)	117 (32.8)
금전관리자	37 (10.4)	78 (24.8)	242 (67.8)
주요 재정 의사결정자	81 (22.7)	231 (64.7)	45 (12.6)

4) 재정 관리유형

조사 대상자 가계의 재정관리유형은 부부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합하여 함께 지출하는 통합관리 유형이 7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을 정하고 지출하는 영역관리 유형이 14.4% 였다. 부부 각자가 소득과 지출을 따로 따로 관리하는 각자관리 유형은 8.2% 였다.

5)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가계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부인들은 가계 총재산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M=4.62). 주부들은 남편들이 자신이 모르는 비자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M=1.88), 그에 비해 자신은 남편이 모르는 비자금이(M=2.12) 더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는 (M=4.47) 지출보다(M=4.19) 더 잘 알고 있었으나 남편은 자신의 소득(M=4.30)과 지출(M=4.18)에 대해 자신보다는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부부 사이의 재정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의 개방도(M=3.99)와 갈등도(M=3.79)는 중간 이상을 보였으나, 남편과의 재정 의사결정의 공평성(M=2.35)과 가계 주도권의 균형도(M=2.8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4>.

<표 4> 가계 재정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변수	하위변수	M	SD	
재정의사소통	개방도	3.99	.76	
	갈등도	3.79	.97	
	주부의 인지 ^c	남편소득에 대한	4.47	.60
		남편지출에 대한	4.19	.60
	남편의 파악에 대한 주부의 인지 ^c	남편소득에 대한	4.30	.59
		남편지출에 대한	4.18	.57
	비자금 ^b	남편의 비자금	1.88	.85
부인의 비자금		2.12	.91	
	주부의 가계 총 재산에 대한 인지 ^a	4.62	.65	
재정권력 평등	재정의사결정 공평성	2.35	.92	
	가계 주도권 균형도	2.89	.82	

Note: 남편의 주부의 소득, 지출, 비자금에 대한 인지는 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파악정도임.

a: 매우 잘 안다 (5) - 거의 안다 (4) - 보통 (3)

- 거의 모른다 (2) - 전혀 모른다 (1)

b: 상당히 있다 (5) - 꽤 있다 (4) - 약간 있다

(3) - 거의 없다 (2) - 전혀 없다 (1)

c: 정확히 안다 (5) - 거의 정확히 안다 (4) - 거의 안다 (3)

- 대응 안다 (2) - 잘 모른다 (1)

2.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 인식에 따른 차이

부부의 현재 주부의 취업에 대한 선호인식에 따른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가계경제권자 유형, 재정관리 유형, 남편과 부인의 비자금 정도, 부인과 남편의 배우자 지출에 대한 인지, 그리고 재정의사소통 개방도와 갈등도, 재정의사결정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의 비자금 정도는 남편은 '남편만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부인은 '부인만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인의 남편지출에 대한 지식은 '부인만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장 높고, '부부 모두 원하는 경우'에 가장 낮았다. 남편은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인의 지출에 대한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인식되었고, '남편만 원하는 경우'에 파악을 가장 못하고 있었다.

부부사이의 가계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부 모두 원하는 경우 가장 개방적이고, 부인만 원하는 경우에 가장 덜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원하는 경우 재정의사소통의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남편만 원하는 경우 갈등도가 가장 낮았다. 재정 의사결

정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남편만 주부 취업을 원하는 경우'의 주부가 가장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부부 모두 원하는 경우'가 공평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표 5>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 인식에 따른 차이

		부부 모두 원하는다	부인만 원하는다	남편만 원하는다	모두 원하지 않는다	X ²	p
		Mean R	Mean R	Mean R	Mean R		
가계관리권 유형	경제권자					21.23	***
	금전관리자					5.15	
	주요재정					9.47	
	유형 의사결정자						
재정관리유형						17.56	**
						F	p
재정의사소통	개방도	181.46	144.53	163.43	161.43	9.68	**
	갈등도	180.55	154.13	123.28	141.21	8.42	**
	남편소득에 대한 인지	166.96	154.89	211.22	190.11	5.21	
	남편지출에 대한 인지	153.32	191.21	169.11	160.38	13.30	***
	주부소득에 대한 인지	170.07	151.79	174.22	183.50	3.68	
	주부지출에 대한 인지	157.12	180.99	142.22	182.43	6.90	*
	남편의 비자금 인지	160.53	191.81	194.11	156.61	9.34	**
	주부의 비자금 인지	160.42	193.98	188.83	148.07	8.53	**
	가계 총 재산에 대한 인지	170.74	164.72	160.50	173.36	.53	
	재정권력 평등도	재정의사결정 공평성	157.25	197.00	212.17	190.96	13.25
가계 주도권 균형도		172.90	167.69	176.28	145.54	1.17	

Note: * p<.10 ** p<.05 *** p<.01 **** p<.001. Mean R 은 Mean Rank

남편의 주부의 소득, 지출, 비자금에 대한 인지는 주부가 인지한 남편의 파악정도임.

3. 가계 관리권 유형에 따른 차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 경제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부인의 총재산에 대한 인지, 남편의 비자금 정도, 부인의 남편지출에 대한 인지, 남편의 부인지출에 대한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자신이 경제권자인 부인이 남편이 경제권자인 가계의 주부보다 가계 총재산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남편소득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경제권자인 가계는 부인이 경제권자인 가계보다 남편이 보다 많은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부인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인지

출에 대해 남편은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편이 경제권자인 가계는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가계에 비해 부인이 남편지출에 대한 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 재정의사소통 갈등도와 재정권력의 공평성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경제권을 행사하는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해 부인이 재정의사소통의 갈등도를 낮게, 재정 의사결정의 공평성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금전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는 부

인의 총재산에 대한 지식, 부인의 비자금 정도, 부인의 남편소득에 대한 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계 금전을 관리하는 가계는 부인이 금전관리자인 가계보다 총재산에 대한 부인의 지식이 낮았고, 남편이 금전관리자인 경우는 다른 가계들보다 부인의 비자금이 적었다. 또 재정의사소통 개방도에서만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남편이 가계의 금전관리를 주로 하는 가계는 재정문제에 대해 다른 가계들에 비해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표 6>.

<표 6> 가계 관리권 유형에 따른 차이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남편	부부공동	부인	χ^2 p
재정관리 유형		경제권자				6.66
		금전관리자				8.61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13.83 **
						F p
재정의사소통	재정의사소통 개방도	경제권자	3.92	4.03	3.97	.48
		금전 관리자	4.25 A	3.89 B	3.99 B	2.80 *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3.93 AB	4.06 A	3.78 B	2.97 **
	재정의사소통 갈등도	경제권자	3.52 B	3.83 A	3.87 A	2.26 *
		금전 관리자	3.81	3.74	3.83	.25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3.55 B	3.92 A	3.67 AB	4.98 ***
	남편소득에 대한 주부의 인지	경제권자	4.39 B	4.23 AB	4.56 A	2.18 *
		금전 관리자	4.38	4.36	4.52	2.33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4.40	4.47	4.58	1.27
	남편지출에 대한 주부의 인지	경제권자	4.35 A	4.12 B	4.25 AB	3.53 **
		금전 관리자	4.29	4.16	4.19	.52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4.29	4.14	4.26	1.96
	부인소득에 대한 남편의 인지	경제권자	4.27	4.31	4.29	.11
		금전 관리자	4.38	4.39	4.26	1.57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4.31	4.31	4.26	.15
	부인지출에 대한 남편의 인지	경제권자	4.35 A	4.22 AB	4.11 B	3.46 **
		금전 관리자	4.26	4.18	4.16	.40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4.24	4.18	4.16	.74
	남편의 비자금에 대한 주부의 인지	경제권자	2.13 A	1.87 B	1.78 B	3.15 **
		금전관리자	1.92	1.91	1.86	.17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2.05 A	1.83 B	1.78 B	2.58 *
	주부의 비자금에 대한 남편의 인지	경제권자	2.27	2.05	2.17	1.32
		금전 관리자	1.78 B	2.11 A	2.17 A	3.02 **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2.17	2.09	2.18	.03
	가계총 재산에 대한 인지	경제권자	4.47 B	4.59 AB	4.73 A	3.14 **
		금전관리자	4.56 AB	4.43 B	4.69 A	4.83 ***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4.34 B	4.71 A	4.69 A	9.90 ****
재정권력 평등도	재정의사결정 공평성	경제권자	2.72 A	2.25 B	2.38 B	5.12 ***
		금전 관리자	2.34	2.47	2.33	1.05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2.48	2.29	2.43	1.39
	가계 주도권 균형도	경제권자	2.77	2.88	2.79	.46
		금전 관리자	2.87	2.99	2.78	1.49
		주요 재정의사결정자	2.78	2.86	2.79	.27

Note: * p<.10 ** p<.05 *** p<.01 ****p<.001 A,B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주요 재정의사결정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재정관리 유형, 부인의 총재산에 대한 인지, 남편의 비자금 정도에서 발견되었다. 가계의 주요재정 문제를 남편이 결정하는 가계는 부인들이 다른 가계들보다 총재산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남편은 비자금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요 재정문제를 남편이 주로 결정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계는 각자관리 유형보다는 영역관리 유형이 많았으나, 부인이 재정의사결정자인 가계는 각자관리 유형이 영역관리 유형보다 많았다.

또한 재정의사소통 개방도와 갈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주요 재정의사결정자가 부부공동인 경우는 부인이 재정의사결정자인 경우보다 재정의사소통 개방도가 높았으며, 재정의사소통의 갈등은 남편이 재정의사결정자인 가계보다 높게 느끼고 있었다. 가계 주도권의 균형도에 대한 주부의 인지는 가계관리권 유형의 어느 유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IV.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맞벌이 가계의 가계관리를 인식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하였으며, 이를 위해 맞벌이 주부가 인지하는 가계 재정의사소통과 재정권력의 평등도를 살펴보고, 주부취업에 대한 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권 유형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간은 1995년 1월에서 2월까지였고 총 358부가 최종분석되었다.

연구결과, (1)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고 있는 맞벌이 가계에서는 가계경제권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부부의 비자금정도에서는 '부인만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부인의 비자금이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인의 남편지출에 대한 인지는 '부인만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장 높았다. 부부사이의 가계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 가장 개방적이고, 갈등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력이 주부에게 가계

문제와 그 결정에 대한 권한을 증대시켰고, 남편 또한 주부의 소득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므로써, 주부가 가계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신이 경제권자인 부인이 남편이 경제권자인 가계의 주부보다 가계 총재산과 남편 소득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경제권자인 가계는 부인이 경제권자인 가계보다 남편이 보다 많은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부인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인지출에 대해 남편은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계 금전을 관리하는 가계는 부인이 금전관리자인 가계보다 총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남편이 금전관리자인 경우는 다른 가계들보다 부인의 비자금이 적었다. 가계의 주요재정 문제를 남편이 결정하는 가계는 다른 가계들보다 주부들이 총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남편이 비자금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가계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계에 대한 파악과 재량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인이 가계관리권을 가진 경우보다 남편이 가계관리권을 가진 경우에 가계재정관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더 많은 것은 부인이 가계관리권을 가진 것은 남편이 가진 것보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권이 적은 것으로 파악,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재정문제를 남편이 주로 결정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계는 각자관리 유형보다는 영역관리 유형이 많았으나, 부인이 재정의사결정자인 가계는 각자관리 유형이 영역관리 유형보다 많았다. 이는 주부의 경제적 발언권이 높은 경우에 가계는 각자관리유형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남편이 경제권을 행사하는 가계가 다른 가계에 비해 부인이 재정의사소통의 갈등도를 낮게 느끼고 있었으며, 부인의 재정의사결정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남편이 가계의 금전관리를 주로 하는 가계는 재정문제에 대해 다른 가계들에 비해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주요 재정의사결정자가 부부공동인 경우는 부인이 재정의사결정자인 경우보다 재정의사소통 개방도가 높았으며, 재정의사소통의 갈등은 남편이 재정의사결정

자인 가계보다 높게 느끼고 있었다.

부부사이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때 재정의사소통의 갈등이 높으며 재정 만족도가 낮고(김정훈, 1995a), 부부의 의사결정 행동은 문화적 영향과 성역할(Munsinger등, 1975; Quallis, 1987)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경제권을 행사하거나 재정의사결정을 내리는 남편 주도적인 전통적 형태의 가정은 현재 갈등도가 낮게 나타나서 실제로 부부공동의 가계관리형태가 실행되고 있다하더라도 아직 주요가계관리권은 남편에게 속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초한 가치관이 가계관리영역에서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재정 의사결정을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의사소통 갈등도는 높지만 또 개방도도 높다는 사실은 부부의 평등적 사고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로서 Munsinger등(1975)이 남편과 부인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주장한 '공동 의사결정'이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계에 대한 연구는 맞벌이 유무에 따른 현상적 연구들이었거나 맞벌이 가계의 기술적인 측면을 주로 연구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계가 이제 보편적인 가계형태로 자리잡아가는 시점에서 맞벌이는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파괴를 의미하며 이는 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리 행동과 역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 재정관리의 두 축인 부부의 소득행동으로 인한 '맞벌이 가계의 인식적 측면'을 전제로 이들의 가계관리의 구체적인 모습에 접근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것은 오늘날 맞벌이 가계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이원화되어있는 소득과 지출을 구성원 개개인과 총체적 가계 복지 추구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초보적 논의였다. 이에 앞으로 맞벌이 가계에 대한 보다 많은 구체적인 기술적, 인식적 측면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들 가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가계관리 모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맞벌이 가계를 위한 재정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 김명자(1981).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 내 역할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2.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정훈(1996). 재정관리 유형과 직업유형에 따른 맞벌이 주부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인지. 대한가정학회지, 34(6), 275-285.
- 김정훈·김현정(1996). 가계 관리권 유형에 따른 재정 커뮤니케이션과 재정 만족도. 원광대학교 논문집, 31-2집, 1251-1261.
- 김정훈·박성옥·어은주(1996). 취업 주부의 취업선호 인식이 개인, 가족,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173-185.
- 김정훈(1995a). 부부사이의 재정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연구, 6(2), 1-14.
- 김정훈(1995b) 재정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남편과 부인,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른 비교.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2), 163-171.
- 김홍은(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79-188.
- 문숙재외 (공역)(1995).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서울:학지사.
- 서병숙·임정빈(1981). 도시와 농촌주부의 가정경제관리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89-106.
- 이무영·이정우(199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4), 11-24.
- 이승신 외(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이연숙외 3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 이정우 · 김규원(1986). 저소득층 취업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63-178.
- 이현송(1996). 여성취업의 확대가 가족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가족과 여성의 경제활동' 1996. 6. 8.
- 한국가족학연구회(편)(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서울:교문사.
- 동아일보 1995. 2. 3 '맞벌이 가구 비율'.
- 경향신문 1995. 12. 14 '맞벌이 부부 생각보다 알뜰'.
- 경향신문 1996. 4. 29 '맞벌이 부부 46% 수입공동 관리'.
- Filiatrault, P. & Ritchie, J.R.B.(1980). Joint purchasing decisions: A comparison of influence structure in family and couple decision-making uni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131-140.
- Fitzsimmons, V.S.(1988). Family money management: How one-earner and two-earner families handle money. ACCI annual proceedings, 145.
- Klebanow, S.(1991). Power, Gender, & Money. in Money and Mind by Klebanow, S. & Lowenkopf, E.L. (Ed.), NY:Plenum press, 51-60.
- Munsinger, G.M., Weber, J.E., & Hansen, R.W.(1975). Joint home purchasing decisions by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60-66.
- Quallis, W.J.(1987). Household decision behavior: The impact of husbands' and wives'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264-279.
- Rubenstein, C.(1981). Money & self-esteem, relationships, secrecy, envy, satisfaction. Psychology Today, May, 29-44.
- Scanzoni, J.(1977). Changing sex roles and emerging directions in family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85-188.
- Schiller, M.K.(1979). Financial counselin for dual income families, in Financial counseling: Assessing the State of The Art, Myhre, D.(Ed.), The Proceedings of a National Conferenc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13-119.
- Spitze, G.D. & Waite, L.J.(1981). Wives' employment: the tole of husbands' perceived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17-124.
- Statban, A. & Larrick, D.(1986). Changing family roles: Implications for married women's earnings. Family Perspectives, 20(1), 13-25.
- Yogev, S.(1987). Integration of work and family among dual-earner couples: A conceptual viewpoint. Family Perspective, 21(2), 77-91.